

글로벌선진중학교 스포츠에서도 두각

2019 충청북도교육감배 및 제35회 충청북도협회장기 축구대회 우승!

글로벌선진중학교 중학교 축구부(이하 음성글로벌선진중 감독 김성일)가 2019 충청북도교육감배 및 제35회 충청북도협회장기 축구대회에서 당당히 우승을 거머쥐며 다시 한번 피란을 일으켰다.

지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단양공설운동장에서 펼쳐진 이번 경기에는 음성글로벌선진중을 비롯하여 신명중, 제천FC, 청남FCU15, FC청주 등 총 5개팀이 참가하였다.

음성글로벌선진중은 10월 26일 청남FCU15와의 결승전에서 송태환이 후반 10분 개인드리블을 통해 질주하여 첫 골을 기록하였고 후반 16분 우지원의 어시스트를 받은 도주성이 추가골을 넣어 승리에 쾌거를 박았다. 청남FCU15도 분발하여 후반 종료 1분전 1골을 득점했지만 음성글로벌선진중의 수비벽을 뚫기란 쉽지 않았었다.

작년 대회에서 준우승을 달성하여 축구 관계자들에게 이목이 집중되었던 음성글로벌선진중은 김성일 감독, 최승기 코치, 안재섭 코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2019 충청북도교육감배 및 제35회 충청북도협회장기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서 글로벌선진중학교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였다.

최우수선수는 오민서, 최다득점상은 도주성, 최우수골키퍼상은 심제만이 수상했고 최우수지도자상은 김성일 감독이 수상하였다.

이에 앞서 음성글로벌선진중은 2019 전국 주팔리 그 축구대회의 충북대전권 우승을 확정지은바 있으며 패어플레이상은 우지원, 최우수선수상은 이영현, 최우수골키퍼상은 한준성, 최우수지도자상은 김성일 감독이 수상하였다.

공부하는 스포츠 엘리트 선수를 지향하는 글로벌

선진중학교의 김성일 감독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선수들의 체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글로벌선진중학교 축구부가 우승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학교와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오는 11월 8일부터 전국 64개 팀이 모여 경남 창원에서 치러지는 2019년 중등축구 리그 골지람 페스티벌 왕중왕전에 출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홈페이지 <https://www.gvcs-es.org>, 문의 043)871-7050-2(인학상담실)

신앙시 감상

동은 정경화

기도하는 자

갯세마네 동산 어느 곳
찬이슬 맞으며 온 몸으로 기도하는 주님이시여
당신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가야할 곳, 아시는 당신이었기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하셨네
당신은 홀로 피어린 땀 흘리시며 기도하는데
나와 너, 어찌하여 잠만 잤을까.

어느 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들었네
말씀은 흰 비둘기가 되어 내려 앉고
초라한 죄인이 발판에 서 있는 것 보았지.
그리고 주님의 행복한 포로가 되었다네.

이제 저희 안에 주님의 그 모습 닮아
삶 속에 생수의 강 흐르도록
낮아진 마음
성령의 불길 붙도록
다라방에 모여 울며 기도합니다.

내일은
복된 땅 철책선 넘어 십자가의 복음 전해지도록
아시아의 외로운 이들에게...
아프리카의 소외받는 영혼들에게도...
그 사랑 증거하도록
기드온의 용사들 준비케 하소서.
그리고 보내소서.
오늘의 간절한 기도 응답주소서.
동녘 하늘이 떠오를 때까지
애타는 마음
눈가에 눈물이 젖도록 간구합니다.

- 막 14:34 인용 -

동은 정경화

- 경북 김천 출생
- Joy 선교회 이사 역임
- 한국 크리스천 문학 회원
- 문학의 강 회원

신간 안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기도 365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여는 아침 기도문



감사와 찬양의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 간구하는 기도는 쉽게 튀어나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는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는 독자가 있다면 저자의 고백이 위로가 될 것이다. 그간 다수의 기도 책을 지은 저자 또한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날마다 구하는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려니 처음엔 당황스러웠다고 한다. 적절한 단어도 생각나지 않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고 울려야 영감이 될지도 몰랐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감사와 찬양의 언어는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고, 자신의 언어가 되었다. 그리고 그간 써온 기도문 중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기도 365를 쓰면서 제일 많은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

저자 : 김민정 |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 (138*200)mm 394p | 판매가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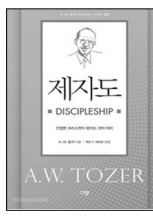
항상 기뻐하라 역경과 비천 원망과 시비를 극복하는 비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역경과 분노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영역 안에도 장애와 난관, 원망과 슬픔이라는 장벽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장벽을 없애고 심령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상에 존재하는 역경과 비천, 원망과 시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책은 바울 사도의 메시지 속에서 그 비결을 찾고자 한다. 어떤 장벽에도 심령의 기쁨과 평정을 온전히 누렸던 바울 사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 보자. 저자는 종신대 대학원(Th.M)에서 신학을 연마하였고, Temple 신학교(M.R.E. 기독교 교육학 박사 과정)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연구하였다.

저자 : 김경섭 | 출판사 : 도서출판 프리젠티 | (152*225)mm 248p | 판매가 :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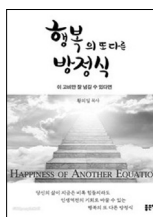
제자도 DISCIPLESHIP 진정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의 의미 (DISCIPLESHIP)



구원은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제자도는 무거운 미루거나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기독교 사역자들 중에도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강력히 권고하면서 도덕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정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순종과 제자도가 구원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역사적 사실, 즉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여긴다.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취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취한 행실을 떠나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저자/역자 : A. W. 토저/유정희 | 출판사 : 규장 | (135*195)mm 192p | 판매가 : 10,000원

행복의 또 다른 방정식 이 고비만 잘 넘길 수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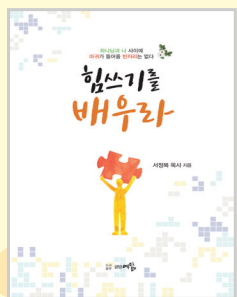


힘든 시간이 인생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믿음력에 달렸다. 불확실한 시대 황의일 목사가 전하는 긍정의 메시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삶에서 찾아오는 고통 때문에 깊이 낙심하기도 같기에 핀 꽃 한 송이를 보고 빙그르르 웃을 짓게 되는 걸 보면 인생의 기쁨과 슬픔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지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다. 우연동 광문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며 여러 기독교 방송에 출연했던 황의일 목사는 수필집 《행복의 또 다른 방정식》을 통해 그동안 삶에서 느껴 온 자신의 '행복론'에 대해 말한다. 그가 말하는 행복의 공식에는 '예수님'이 들어 있다. 삶에서 어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만나도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진다.

저자 : 황의일 | 출판사 : 줄은망 | (148*210)mm 264p | 판매가 : 12,000원

화제의 신간 / '힘쓰기를 배우라'

뜨거운 찬양 사역자, 열정적인 설교가 서정복 목사의 신간 '힘쓰기를 배우라'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담임)

동이트는 새벽, 시린 손 호호불며 기도의 손을 모으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의 삶을 다짐하는 남원중앙교회 새벽제단의 특별새벽기도회의 말씀이 오롯이 가슴에 와 닿는다. 믿음·소망·사랑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방해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생명의 말씀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남원중앙교회 서정복 목사의 특별새벽기도회 설교말씀이 수록되어 있다. 귀한 말씀이 복음의 도화선이 되어 갈급한 심령에 불타오르기를 기도한다.

'힘쓰기를 배우라' 서정복 목사 지음,
도서출판 글방 예담 발행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 선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가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가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와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회위원회
군선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